

투데이

“올림픽 영웅 보자” 광주 들썩

기보배·양학선·최은숙·기성용 환영대회 1천명 몰려

광주시 미숙한 행사 진행 ‘옥에 티’

올림픽의 영웅들이 고향 광주를 찾았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선전을 펼친 기보배(24·광주시청), 양학선(19·한체대), 최은숙(27·광주 서구청), 기성용(23·셀틱)이 2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출신 런던 올림픽 메달리스트 환영식’에 참석해 고향팬들 앞에 섰다. 여자 양궁 대표팀 코치로 기보배의 급매달을 조력한 박재순 광주시청 양궁팀 감독도 영광의 얼굴로 자리를 했다. 시청 브리핑 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짜릿한 승리의 순간을 회고한 이들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환영식 행사에 참가했다. 런던의 영웅들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찾은 1000여 명의 팬은 열렬한 함성으로 이들을 맞이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에는 이들의 활약상이 펼쳐지면서 런던의 감동이 되살아났다. 열정을 다한 플

레이 하나하나에 팬들은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강운태 시장은 축사를 통해 “2012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있는 광주 출신 선수들이 맹활약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광주를 빛내달라”고 언급했다. 환영식 행사가 끝난 후 선수들은 사인회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뜨거운 런던 올림픽처럼 팬 사인회의 열기도 뜨거웠다. 축구공과 유니폼, 선수들의 활약상이 담긴 사진을 든 팬들로부터 사인회장은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광주시의 미숙한 행사 진행이 ‘옥에 티’가 됐다. 런던의 영웅들을 만나기 위해 1000여명이 넘는 팬들이 일찍부터 시청을 찾았지만 많은 이들이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당초 예고된 것과 달리 행사 시간이 30분 이상 늦어졌지만

공지가 되지 않아 원성을 샀다. 1층에서 예정됐던 사인회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환영식 행사가 늦어지는데 한꺼번에 팬들이 몰려 들면서 선수들은 오찬장으로 바로 자리를 옮겼다. 선수들을 대신해 시 관계자가 미리 작성한 사인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데 몰리면서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군산에서 광주를 찾은 신다혜(20)씨는 “8시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10시 정도에 관계자가 자원봉사신청해서 온 400명이 이미 번호표를 받아 가서 사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나중에는 다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선수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단 일이 됐다”며 “입장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눠주든지 해야 사전에 광고는 다 해놓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내기 행사를 얻 걸렸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제2컨벤션센터 기공식

광주 제2컨벤션센터 기공식이 21일 오후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행사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오병윤 국회의원, 조병휘 김대중센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인 제2컨벤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1만8500㎡ 규모로 건설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서부권 주민 70% “전남~ 제주 해저고속철 찬성”

전발연 771명 설문

목포, 강진, 신안 등지 전남 지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밝힌 주민들은 전문적인 건설비용 부담과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과 정철 연구위원 등이 최근 전남 서부권 주민 771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해저고속철도에 관한 지역민 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목포,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신안 등 해저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인근 9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해저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응답자의 66.8%(515명)는 찬성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33.2%(256명)는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한 이유는 ‘관광객 증가와 관

광산업발전’이 46.6%로 가장 많았고 ‘물적·인적교류 확대’(17.7%), ‘지역경제 활성화’(17.3%), ‘제주도 진입·출입 수단의 다양화’(12.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반대하는 이유로는 ‘건설비용 대비 경제적 기대 효과 불확실’(35.2%), ‘환경 파괴’(19.9%), ‘제주행 관광객이 통과만 하게 돼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15.2%), ‘제주도가 섬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게 될 것’(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팀은 또 ▲해저고속철 건설효과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해저고속철도를 통해 남해안 관광 시대의 새로운 한 축으로 형성 ▲21세기 한반도 성장프로젝트의 하나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민·다문화청 신설해 쌍방향 통합정책 펴야”

한국·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기념학술대회서 제안

국내에 들어오는 이민, 다문화 계층을 위한 ‘이민·다문화청’(가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광주 조선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김인숙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민 행정 추진체계의 재정비를 제안했다. 김 소장은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불법체류자도 이민통합정책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며 다문화 계층에 대한 전

반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등을 이관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가칭 ‘이민·다문화청’을 신설해야 늘어나는 이민·다문화계층을 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내 이민 관계법령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운용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는 등 이민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정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사회통합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조선대 국제문화연구원과 언어교육원, 베트남 국립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조선대는 2008년 10월 이 학교와 공동으로 호찌민 세종학당을 설립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어세계화재단도 호찌민 세종학당을 지원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F1 입장권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조직위, 온라인 판매 최고 20%까지 할인

F1대회조직위원회가 21일 ‘2012 F1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 입장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한카드와 함께 온라인(옥션티켓과 G마켓 티켓) 결제 시 일반회원은 10%, 탑스회원은 20% 할인된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관람바우처 중목에 F1 대회를 추가,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업 등이 대량으로 단체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12~18%까지 특별 할인한다. 2012 F1한국대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경기장에서 열린다. F1조직위는 관람객 서비스를 위해 케이팝(K-Pop) 콘서트를 금요일과 토요일 2회 연속 열 계획이다. F1 입장권 소지자는 전남지역 골프장과 도내 유명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도 받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태풍 ‘카눈’ 복구비 5억8천만원 지원

전남도는 21일 “태풍 ‘카눈’으로 인한 과수 낙과, 농작물 쓰러짐,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총 5억8000여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태풍 카눈은 지난달 18일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배 낙과, 비닐하우스 파손 등 783ha의 재해피해를 끼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는 지난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지난 17일 중앙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재해로 인정됐다. 복구비는 생계비·농약대·대과대 등 5억8596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빛고을 사랑 기금모금 캠페인’

광주공동모금회와 함께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일 ‘빛고을 사랑 기금모금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상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공직자들의 나눔 실천 운동인 ‘빛고을 사랑 기금모금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zi Hanwen Guidance Teacher Qualification' (漢字·漢文指導師資格) with details on exam dates and locations.

Advertisement for 'Public Servant Loan' (공무원 대출) with interest rates and terms.

Advertisement for 'Namsokdang' (남골당)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religious services.